당서초등학교 2학년 5반 김영민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 날씨 : 맑음

제목 : 민준이의 생일잔치

마트에서 엄마 아빠께서 민준이가 좋아하는 이글로의 등지 다이빙을 사주셨다.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을 도와 주었다. 다 만들어서 민준이와 게임도 했다. 이 게임은 양조에서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등지에 착륙하면 이기고 착륙을 못하면 지는 게임이다.

민준이는 게임을 잘 할줄 몰라서 아빠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셨다.

오랜만에 민준이랑 게임을 하니 재미도 있고 민준이랑 더욱 친해진 것 같다.